
베네수엘라: 왜 반대파는 또 다시 실패했는가?

마누엘 서덜랜드

경제학자, 노동연구교육센터 소장

원제와 출처: Manuel Sutherland, “Venezuela: ¿por quévolvía fracasar la oposición?”,
Nueva Sociedad, No. 282, julio-agosto de 2019, pp. 4–14.

핵심어: 인도주의적 원조, 경제 위기, 후안 과이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2019년 베네수엘라의 반대파는 몇 년을 통틀어 최고의 2월을 보냈다.¹⁾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자기를 “위임 받은”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선포하면서, 쇠퇴한 베네수엘라 정치의 올림포스로 전격 입성한 것이다. 2월에 그는 다수의 세계 유력 일간지에서 제1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후, 즉 ‘인도주의적 원조와 관련해 군중의 갈채를 받은 사건들과, 군부의 반란을 종용하려던

1) 본고에서 ‘반대파’에 대해 말할 때에는 반대파 중 가장 활동적인 분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반정부 시위에서 중심 역할을 한 분파, 즉 수구 우파를 가리킨다.

무모한 시도²⁾ 이후의 국면은 당시 반대파가 낙관하던 것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니콜라스 마두로 체제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전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활발하지만 상궐에서 벗어난 국제적 지지와 함께 정치적 과오의 바다에 또 다시 수몰된 것 같다. 차베스주의를 권좌에서 몰아내려는 술한 시도가 어떻게 무마될 수 있었을까?

식퇴한 반대파가 보기에 조짐이 좋았던 2019년

2019년 1월 10일 마두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2018년 5월 20일에 치러진 조기 선거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는데 반대파는 일말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의 출마를 정부가 막았다면서 부정선거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나타난 후보들이 출마하는 것만 허용했다. 대선 투표율이 46%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근래에 치른 대통령 선거 중 가장 기권율이 높은 선거였다.³⁾ 권력집단은 정부가 출마를 허용한 엔리 팔콘 후보와 교섭하길 거부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선거전을 완전히 포기했다. 이 때문에 반대파는 마두로를 “권력 강탈

2) 후안 파이도 국회의장은 자국의 식품·의약품 부족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요청했고 이에 미국, 캐나다, EU가 원조를 약속하며 원조물품을 보냈다. 그러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등 우파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을 경우 내정간섭의 발미가 될 것으로 우려해 원조를 거부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시민 1천만 명의 서명을 모아 미국에 전달할 계획으로, 미국의 개입행위를 거부한다는 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파이도 의장은 군부에 마두로 정권 이탈을 촉구하면서 사면을 제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군부를 향해 후안 파이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베네수엘라 군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복종과 충성을 다짐하고 있으며, 어떠한 외국 정부의 명령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역주).

3) Daniel García Marco: ‘Elecciones en Venezuela: qué dice la alta abstención sobre las presidenciales en las que fue reelecto Nicolás Maduro’ en *BBC Mundo*, 21/5/2018.

자”라고 비난했고, 베네수엘라가 2019년 1월 10일부터 불법적으로 취임한 대통령의 통치 하에 있으니 세계가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계획의 한가운데에서 반대파는 권력 강탈에 대한 규탄, 아울러 국가권력의 공백에 대한 성토를 중심으로 재무장했다. 또한 당시 인지도가 거의 없던 과이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할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반대파는 대통령의 “절대적 부재” 상황에서 따라야 할 기준을 확립한, 헌법 233조에 기댔다. 사실 이 절대적 부재란 사망, 사임, 대법원이 판결한 파면, 영구적인 신체 또는 정신적 불능에서 비롯되는 부재를 가리킨다. 이런 경우, 부재가 대통령 취임 이전에 발생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맡아야 한다. 대통령의 공백이 취임 이후에 발생하면, 2013년 3월 5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실제 행했던 것처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되 향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를 의무가 있다.

반대파는 헌법 233조와 독특한 해석을 휘두르면서, 일종의 권력 찬탈이 있으며 동시에 대통령직의 “절대적 부재”가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취임은 불법적인 것이며 그 결과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바로 이 지점에서 과이도의 합법성이 비롯되었다. 아무도 헌법에 대한 이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기쁨은 미국 우파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파벌로부터의 매스컴 지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광적인 독려에 힘입은 것이다. 이는 결국 1월 23일 군중 행진 이후 광장에서 과이도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월 23일은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의 독재정권이 종식된 날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회복된 상징적인 날짜다. 헌법에는 “위임 받은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트럼

4) Elkis Bejarano Delgado: 《Maduro usurpa el poder con juramentación este 10 de enero》 en *Diario Las Américas*, 9/1/2019.

프와 다수의 정부는 즉시, 그리고 새로이 열광하며 그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⁵⁾

그때부터 국제적인 미디어들의 제1면에서 지속적으로 젊은 대통령에게 환호하며 그를 싸고돌기 시작했다. 과이도 팀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다음과 같은 불투명한 만트라를 만들었다. 1. 권력 찬탈 중지 2. 과도 정부 3. 자유선거. 여섯 단어로 구성된, 아주 명료한 한 줄짜리 만트라였다. 미국 정부는 감히 과이도를 건드리지 말라고 차베스주의를 위협했다. “모든 선택은 테이블에 있다”는 문구는, 미국의 디테이 스타일 군사 침략 가능성, 또는 파나마 침공 때처럼 외과수술 스타일의 침략 가능성과 관련해 바이러스 퍼지듯 확산되었다. 침략은 피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가능성은, 잠재적 전쟁행위의 결과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많은 반대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었다. 과이도는 베네수엘라에 내전을 겁내는 사람은 없으며⁶⁾ 군사 개입이라는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다.⁷⁾

바퀴 없는 트로이의 목마

국제 사회는 삼위일체의 신비처럼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을 설명하려고 링크를 들이붓다시피 했다. 바닷가의 산 아구스틴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한 것처럼⁸⁾ 가장 저명한 분석가들이, 과이도가 어떻게 베네수엘라 공화국 대통령과

5) 2019년 6월 하순까지 50개 이상의 국가가 과이도를 “임시대통령”으로 승인했다.

6) 《Guaidó: 90% de los venezolanos no le teme a una guerra civil》 en *Notitarde*, 3/2/2019.

7) Néstor Veloso: 《Juan Guaidó no descarta autorizar una intervención militar de EEUU ‘para echar a Maduro’》 en *El Español*, 9/2/2019.

8) 산 아구스틴은 성 아우렐리우스의 스페인어 표기다.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포넨시스(354~430년)는 가톨릭 주교이자 신학자로, 서구 기독교에서는 교부(敎父)로 여겨진다. 그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생각하며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날라 모래의 구멍에 붓는 어린 아이를 만난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모두 나르겠다는 아이의 생각이 불가능한

국회의장이 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했다. 즉, 권력 강탈과, 2019년 2월 대선을 치러야 할 “절대적 부재”가—만약 부재가 있다면—무엇에 기반을 두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다. 이런 실없는 소리들의 틈바구니에서 사람들은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백악관의 몽상과, 망명 중인 베네수엘라 출신 전쟁 도발자들이 무책임하게 조장한 마두로 퇴진이라는 현기증 나는 여정은 전투적이고도 소득 없는 수사(修辭)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하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상황의 특수성에 대한 트럼프와 국제 사회의 무지는 실로 엄청나다. 그들은, 막대한 금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을 제공하는 보고서들, 반대파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는 보고서들만 읽는 것 같다. 엄청난 경제적 재난을 정치적 취약함으로 잘못 해석한 분석은 트럼프로 하여금 차베스주의에 대해 수월하고 신속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유도했고, 차베스주의 정부가 20년째 굴하지 않고 버티는 법을 배우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터키에게서 든든한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끔 했다. 국제 사회 마스크의 홍보함은, 베네수엘라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반비례한다.

2월 중순, 흥분은 이미 얼마간 약화되었다. 반대파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목적의 명확한 방향조차 찾지 못했다. 반드시 필요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권력 강탈에 대한 일종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그런 무질서에서 대두되었다. 그렇게 인도적 원조물품을 실은 트럭 안에 반체제 군인들을 투입하고, 식량상자 안에 무기를 숨기거나 강제로 트럭을 통과시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트럭에 올라타 주민들을 공산주의의 압제에서 구출할 계획이었다. 이 작전은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마리오 압도

| 것처럼 삼위일체의 복잡한 신비를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역주).

파라과이 대통령 같은 대통령들의 출현으로 탄력을 받아, 또 다른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뉴스로 국제적 차원에서 팔렸다. 이들 대통령은 압제의 영예로운 몰락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콜롬비아의 국경도시 쿠쿠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신기루는 적십자 같은 인도적 원조 전문기관들이 앞서 언급한 계획에 동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비난하면서 매우 약해졌다. 즉, 인도주의적 원조는 어떤 정부를 쓰러뜨리기 위한 썰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입국을 위해 정부의 승인과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물품이 실리고, 화염병과 새총을 소지한 젊은이들이 탄 트럭 네다섯 대가 입국한다고 해서 권력 강탈이 종식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인도적 원조의 입국절차는 수도에서 20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다. 인도주의적 원조가 “자유의 여신”의 명령에 따르는 군인들의 대규모 탈영을 유발하리라는 건 더욱 더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금전적인 제공이 있었더라도, 그리고 제공되는 금전이 아무리 정직하지 않더라도 말이다.⁹⁾

예상대로,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다. 트럭은 들어오지 못했고, 원조트럭의 입국을 위해 존재를 드러내야 했던 대중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반대파는 트럭 중 한 대에 난 화재사건을 악용하려고 했다. 수백 개의 미디어가 나서서 “마두로의 경찰”이 트럭들을 불태웠다고 보도한 것이다.¹⁰⁾ 과이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미국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도 나서서 이 악의에 찬 행동을 비난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뉴욕 타임스》 기자들은 단기간의

9) Jim Wyss: «Esperaron sumarse a la liberación de Venezuela. Ahora son soldados sin una misión» en *El Nuevo Herald*, 9/5/2019.

10) Sabrina Martín: «Policía de Maduro quema camiones con ayuda humanitaria» en *Panam Post*, 23/2/2019.

조사 끝에 그 보도가 거짓이라는 걸 폭로했다.¹¹⁾ 그들이 올린 영상에서 한 청년이 어떻게 우연히 트럭이 운반하는 상자 위로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유발했는지 드러 난 것이다.

교착 상태(impasse)

2019년 1월부터 세운 계획대로라면, 점점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대중 행진을 벌이면, 첩보기관을 엄청나게 동원하고 사회를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민간-군사 정부를 전복시기에 충분할 것이었다. 필자는 이미 여러 편의 글에서 정부에게 일종의 “생명 권력”¹²⁾을 부여하는 대중 후견과 관련된 세 개 요인에 대해 다룬 바 있다. 가장 빈곤한 계층은 바로 이 생명권력 때문에, 자신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보장하고자 점점 더 정부에게 의존하게 된다.¹³⁾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경제 제재는 민중과 정부 간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부에게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불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제공한다. 금융 제재가 처음 시작된 것이 2017년 8월이었는데도 정부와 “좌파 립펜진보주의자”는, 최악의 경제 성적이 제재 때문이라고 손쉽게 잘못을 돌린다.

11) Nicholas Casey, Christoph Koettl y Deborah Acosta: 《Footage Contradicts US Claim that Nicolás Maduro Burned Aid Convoy》 en *The New York Times*, 10/3/2019.

12) 미셸 푸코가 일상적인 삶, 생물학적 신체, 통치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는 인구를 포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전체 인구를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는 정치공학을 일컫는다. 규율 권력이 사회적 분류체계에 따라 범죄자를 비정상인으로 구별한 채 그들을 교정·교화함으로써 정상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비해 생명 권력의 전제는 정상인의 자리를 삭제하고 모든 인구가 확률적으로 범죄자, 즉 비정상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죄자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하나의 인격, 또는 범죄율로 표현되는 범죄성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인구 전체에서 자연 법칙적으로 나타나는 범죄성-범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함으로써 사회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다(역주).

13) 그 세 개 요소란 선거 메커니즘, 무분별한 통화 발행, 공공 서비스 보조금이다. M. Sutherland: 《¿Por qué volvió a ganar el chavismo?》 en *Nueva Sociedad*, edición digital, 10/2017.

3월에 있었던 항의 집회는 국가 전력시스템 마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¹⁴⁾ 많은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며칠 연속 중단된 것이다. 수도에서 먼 지역들에서는 몇 년 전부터 물, 전력 공급, 가스, 휘발유 공급이 정기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계속되었지만 수도인 카라카스에서 3~5일간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 점은 침략에 대해 환호하던 경미한 충돌에 제동을 거는데 기여했고, 사람들에게 침략이 있을 경우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항의 집회는 뜸해졌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집단 이주가 강한 동력을 얻었다.

4월은 반대파가 또 다시 마비 상태에 빠진 것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2002년 그리고 2003년에 실시된 것과 같은) 총파업이나 기업의 파업이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많은 기업인단이 사실상 파산 상태나 다름없고, 아주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에서 비공식 부문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을 뿐 아니라, 파업을 신속하게 좌절시킬 국가 공무원의 수도 아주 많다. 주요 경영진 모임들에서는 그 점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락아웃(lockout)¹⁵⁾을 감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4월 30일의 군사 반란

5월 1일에는 예년의 노동절과 마찬가지로 행진이 있을 것이라고 공표되었다. 한쪽에는 자신의 임기 동안 실질 임금이 92% 삭감되었는데도, 월 급여가 6달러

14) M. Sutherland: 《Venezuela y el colapso eléctrico》 en *Nueva Sociedad*, edición digital, 4/2019.

15) 고용주가 사무실, 공장 등의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역주).

에서 12달러로 인상되었다며 경축하는 어조로 선언하는 대담함을 지닌 “노동자의 대통령”이 있었다. 다른 한 쪽에는 과이도의 행진이 있었는데 그는 정부의 경제 계획으로 “국가 계획(Plan País)”을 채택했고 그의 정부는 노동자가 주역이 되는 걸 전혀 바라지 않았다. 근래에 있었던 행진들에 비춰보면, 국제 노동절을 기념하는 (곧잘 반공산주의 연설을 하는) 반대파에 인원이 많지 않으리라는 점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과이도 사단은 최저 임금의 강력한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국가 계획”을 이끄는 경제학자이자 야당 의원인 호세 게라는 월급을 20달러로, 중기적으로는 30달러까지 인상하자고 제안하는데,¹⁶⁾ 이는 광범위한 빈곤층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경제적 요구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아마 더욱 음모적인 다른 이유들 때문에, “자유 작전(Operación Libertad)”의 일환으로 반란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극비리에 4월 30일로 앞당겨졌다. 과이도가 소속된 민중의 의지(Voluntad Popular)당의 여러 지도자들은 그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같은 야권 지도자인 레오폴도 로페스가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것은 아주 중요한 조짐이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수백 명의 지지자들은 카를로타 공군 군사기지에 도착했을 때 실망을 금치 못했다. 반란을 일으킨 소수의 군인과 과이도가 기지 점거에 실패했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이 무모한 기도에 가담한 군인의 수가 얼마되지 않고 화력도 없다는 점과, 결국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하고 실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중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원 수백 명만 가담했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이다.¹⁷⁾ 민중의 의지당이 자기네 계획에 다른 정당들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날 오후가 저물 무렵, 반란의 주동자들은

16) 《Guaidó, el FMI y los 20 dólares del salario mínimo del 'Plan País'》 en *La Izquierda Diario*, 22/4/2019.

17) 《Dato a dato: intento de golpe de Estado en Venezuela. 30 de abril 2019》 en *Portal Alba*, 30/4/2019.

칠레, 브라질, 스페인 대사관으로 급히 피신했다. 전투도, 무훈도 없었다. 이 계획이 실패하면서, 그들의 정권 교체 계획은 한층 더 가라앉았다.

격동의 6월

최근 거행된 행진에는 참가 인원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과이도는 소도시와 제한된 지역의 시 의회 유세에 집중했다. 최근 전략의 이름은 “가가호호(casa por casa)”다. 정의제일당(Primera Justicia) 같은 정당들의 지도자 몇 명이 그 유세에 따라가긴 하지만 규합된 인원의 규모는 매우 작고, 적극적인 민중의 지지는 근소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종 선거전에서 과이도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수치가 40%나 되지만 말이다.¹⁸⁾

과이도의 계획에 대한 지지가 (한층 더) 낮아진 또 다른 계기는, ‘PDVSA 2020’ 채권 관련 이자에 대한 7천만 달러라는 통 큰 지불금이었다(2016년 채권 발행 당시 국회는 이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국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미국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자산을 과이도 정부 수중에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을 지불할 사람들이, 그 돈이 시트고(CITGO)¹⁹⁾에게 얼마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모순적이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경제 위기 상태에서 인도주의적 원조금 2천만 달러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 7천만 달러의 대금을 지불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과이도가 트럼프에게서 행정 명령을 얻기 위해서나 UN에게서 베네수엘라의 자산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을 받아내기 위해 공개적으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

18) Eugenio Martínez: ‘Guaidó es el líder con mejor valoración entre los votantes venezolanos’ en *Diario Las Américas*, 9/6/2019.

19)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의 자회사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유회사(역주).

이다. 압류 불가 조치가 취해지면, 체납하더라도 물수의 위험을 면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런 일은 행정명령 제13303호와 UN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제1483호를 동원해 대량 학살을 범한 이라크 침공 전날에도 있었다.

여기에 인도주의적 원조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는 고발이 더해졌다.²⁰⁾ 쿠쿠타 사태는 반대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왔다. 인도주의적 원조 때문에 민중은 국경지대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했는데 이 인도주의적 원조는, 정부가 불투명하고 부도덕하게 경제를 운영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다. 미주기구 사무총장 루이스 알마그로는 뻔뻔스러운 횡령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라고 명했다.²¹⁾ 미국의 반차베스주의 매체 〈판암 포스트(PanAm Post)〉의 탐사 보도에서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심각한 공금 횡령이 입증되었다.²²⁾ 그 시기에 (가족을 데리고) 탈영해 쿠쿠타로 간 군인 3백여 명에게 지불하려고 할당된 돈이 대부분 사취되었다. 이 점은 군인들이 호텔에서 퇴거한 방식과,²³⁾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과이도가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군인들의 불평에서 입증되었다. 과이도를 지지하며 이탈하여 콜롬비아로 간 공무원 수가 4월에는 이미 1,200명을 넘었다고 추산된다.

부패 음모는 곧바로 “위임받은 대통령”에게 이르렀다. 과이도는, 수개월 전부

20) 미국의 한 지방 매체가, 과이도의 대리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인도주의적 원조 자금을 착복했다고 보도했다(역주).

21) 《Almagro solicita investigación tras denuncia de corrupción contra enviados de Guaidó con 'ayuda humanitaria' en Cúcuta》 en *Últimas Noticias*, 15/6/2019.

22) Orlando Avendaño: 《Enviados de Guaidó se apropian de fondos para ayuda humanitaria en Colombia》 en *Panam Post*, 18/6/2019.

23) 마두로 군대를 버리는 모든 군인은 영웅이 될 것이며, 따라서 영웅다운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과이도의 약속을 믿고 2월 하순에만 27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공무원이, 4월까지의 1,285명의 공무원이 콜롬비아와의 국경지대로 넘어갔다. 이들은 국경에 있는 호텔 7개에 묵었는데 이중 5개는 콜롬비아 정부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가, 2개는 과이도 정부가 숙박비를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과이도 측에서 호텔비용을 결제하지 않아 65명의 군인과 그의 가족들은 호텔에서 퇴거해야 했다(역주).

터 콜롬비아에 망명 중이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가비 아레야노와 호세 올리바레스를, 지명도가 거의 없는 로사나 바레라(과이도의 오른팔인 세르히오 베르가라의 처제)와 케빈 로하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바레라와 로하스는 둘 다 대중의 의지당의 당원이다. 바레라는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콜롬비아 정부와 UN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가 지불 중인 호텔 청구서를 자기 것인 양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이탈한 이들의 실제 수치를 두 배로 부풀리고 콜롬비아에 있는 (과이도의) 베네수엘라 “대사관” 명의의 가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금을 모을 만찬을 준비했다.²⁴⁾ 횡령된 10만 달러는, 콜롬비아 정보부가 밝힌 부패 음모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조 물품으로 들어온 식량 중 약 60%가 못쓰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토록 통행량이 많은 국경에서 식량을 분배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야권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지지한다는 점이다. 경제 제재 때문에, 의약품과 식량 조달에 사용될 수 있을 외화 약 60억 달러가 외국에 묶여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 원조 총액의 약 3백 배에 상당하는 액수다. 그 돈의 일부가 마두로 정권에 의해 무기 구입, 채무 상환 또는 비리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분쟁 중인 양쪽 진영이 합의한 베네수엘라인들, 그리고 UN 및 UN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카리타스나 적십자 같은 국제기구들이 개입해 그 물자들을 다자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차베스주의의 운영 때문에 발생한 경제 위기, 그리고 미국의 과도한 제재 때문에 악화된 경제 위기의 결과를 완화하고자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2사분기에 경제 반등 현상이 확실히 일어나리라는

24) Ibid.

것이다. 2019년 1사분기는 특히 전력 공급 중단이 길어지고 정치적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필리 베네수엘라 경제역사상 최악의 시기였지만 에너지 공급의 개선과, 단계적이며 느리고 매우 때늦은 경제 개방 때문에 경제가 반등하여, 이사분기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통화의 자유교환성은 실제로 국가 통제를 해제시킴으로써 물가 조절을 가능케 했고(이는 제품 부족을 감소시켰다), 이에 더해서 결제통화인 달러의 자유로운 유통이 승인되었다. 더욱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은행 간 자금 테이블에 환율 고정 책임을 맡겼으며, 이 환율은 당시 베네수엘라 시장 내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 모든 건, 경기가 끊임없이 악화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반대파 주장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다.

오슬로: 부끄러운 회담

오슬로에서의 회담은 차베스주의 온건파 성원들과, 대화 의지가 가장 강한 반대파 일원들이 1년 넘게 진전시킨 끝에 성사되었다. 새로운 점이라면, 꼭 필요했던 가장 전투적인 반차베스주의를 최근에 포함시킨 것이다. 문제는 과이도와 미디어계에서 가장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대화는 절대 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년간 회담을 심하게 모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가능한 유일한 절충안은, 마두로와 그의 공모자들이 관타나모 기지의 어느 감방에서 지낼지 논하는 것이다. 그런 완고함 때문에 야권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對)베네수엘라 보좌관인 강경파 엘리엇 아브람스는 이미 침략 가능성을 확실히 포기했다. 그는 폭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방법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차베스주의가 국회로 돌아가야 하며, 모두가 함께 평화적 이행을 건설해야 한다고 단언한다.²⁵⁾

구체적인 사실을 봐도, 반대파는 차베스주의에 항복을 강요할 만한 것이 없고, 내부에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견고하고 조직화된 민중의 동력도 없다. 제재만이 차베스주의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권좌에 영원히 머물면서 권력을 전제적으로 집중시키려는 열망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요한 점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고,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교섭은 트럼프와 마두로의 공무원들 간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야권은 이렇다 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마두로의 뒤에는 중국, 러시아, 터키, 그리고 쿠바가 있다. 이 중 쿠바는 오슬로에서 차베스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²⁶⁾, 그리고 과도 정부를 강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난받는다. 이행기에는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베네수엘라 현 국방장관이 차베스주의의 정치적 연속성과 쿠바에 대한 에너지 원조를 보장하는 과도 정부를 통솔할 예정이다.²⁷⁾ 그 후에는 새로운 국가 선거 위원회와 더불어 선거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건 추측에 불과하지만 확실한 것은, 노르웨이 중재자들이 쿠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 중재자들이 2016년 8월 아바나에서 체결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 콜롬비아 정부 간 협정에서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또 다시 군사적 성격의 쿠데타가 있었다. 6월 26일 오후, 정부는 비꼬는 어조로 또 한 차례의 군부 반란 시도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30명 이상의 군

25) 《Abrams: chavismo debería volver a la Asamblea Nacional y pactar transición》 en *El Estímulo*, 29/6/2019.

26) Jorge Hernández Fonseca: 《La mano de Cuba en las conversaciones venezolanas de Oslo》 en *14 y Medio*, 22/5/2019.

27) *Ibíd.*

인이 투옥되었고, 이들은 차베스주의를 지지하는 판사들에게 관대하게 기소되어 조국에 대한 반역죄를 선고받을 것이다. 당국 대변인들의 논평에 따르면, 대중의 의지당과 정의제일당의 당원들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반란은 때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통제되고, 이 때문에 반대파 중 일부는 더욱 낙담하고 있다. 그들은 잘못된 그레이하운드에 베풀고 한결같이 쉽게 진다.

반란이 일어난 지 며칠 후, 마두로는 4월 30일 쿠데타의 우두머리가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 전직 원장인 마누엘 크리스토퍼 피게라 장군이라고 발표했다. 마두로에 따르면, 피게라는 미국 CIA에 포섭되었고, 이후 반란에 자기 부대만 남겨 놓고 도망쳤다고 한다.²⁸⁾ 피게라는 쿠데타 시도 전날 밤 레오폴도 로페스를 풀어 준 인물이다. 그 결과 미국은 피게라에게 가한 제재를 해제했고²⁹⁾ 그를 “따라야 할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말했다.³⁰⁾ 마두로에 따르면, 실패한 쿠데타의 군 수뇌부 피게라 장군은 CIA를 위해 잠입해서 일하고 있었다. 이는 날조일 수도 있고, 또는 정부의 각 부처와 PDVSA와 같은 핵심 기업들을 담당하는 군인들을 통해 정부를 지지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군 및 첩보 권력 내부의 균열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1821년에 있었던 카라보보 전투³¹⁾의 날이자 베네수엘라 독립의 핵심 날짜인 6월 24일에 전통적인 군사 퍼레이드가 거행되지 않은 것은 군(軍) 문제 전문가들에게 온갖 정보로 여겨졌다. 대신 매우 검소하고 우울한 열병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는, 점점 더 군대처럼 변하는 정부의 현실과 다소 거리가 멀다고

28) 《Prófugo Christopher Figuera fue captado por la CIA para articular golpe del 30A》 en *Venezolana de Televisión*, 10/05/2019.

29) 2019년 2월 미국 정부는 피게라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고위 관료 5명에게 제재를 가했다(역주).

30) 《Crisis en Venezuela: ¿quién es Manuel Ricardo Christopher Figuera, el ex-director del SEBIN al que EEUU le retiró las sanciones?》 en *BBC News Mundo*, 8/5/2019.

31) 베네수엘라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가 이끈 그란콜롬비아군이 스페인 제국군과 맞서 싸운 끝에 크게 이긴 전투로, 6월 29일 카라가스 해방의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었다(역주).

여겨지는 궁의 음모들에 연루된 이들을 생각나게 했다.

아권 중 가장 온건한 파에서는 대화에 사활을 건다. 문제는 그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보유하지 못했고, 그 결과 민중의 힘을 규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침략을 꿈꾸는 이들의 통신기관에 의해 미디어에서 밀린다.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실현 때문에 붕괴했다는 속임수를 파는 국제 반공주의는, 매우 유용하고도 절박한 수단으로서 마두로의 실각을 팔며 외국에 손을 벌리는 주전론의 거짓말을 기꺼이 구입한다.³²⁾ 지속되는 경제 위기는, 그들이 반사회주의의 선전을 만들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결핍과 전망 없는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고자 어쩔 수 없이 베네수엘라를 등지는 수백 만 명의 이주 붐을 이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극우파가 매우 유해한 방법으로 싸움을 계속하고 난폭한 습격을 동원해 상대방을 제거하겠다고 계속 협박하는 동안,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나머지 반대파에게는 점점 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쿠데타 가담자들에게는 패배와 증폭된 탄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경제 제재 때문에 증가한 빈곤은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강력한 동기고, 이는 사회 통제를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체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인구가 감소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담과 항의 집회가 더 적어지는 경향과 송금액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후원주의 식으로 사용된 수입원은 더 많은 이익을 낳는다. 수지타산이 잘 맞는 성공적인 사업이다.

비판적 좌파는 여전히 불청객 같은 존재다. 그러는 사이에, 좌파 룬펜 진보주의자는 마두로와의 연대를 통해 계속해서 상당한 돈을 벌고, 양분이 풍부한 정치적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들은 모든 정의와 이성을 동원해, 군사 침략의 위협

32) M. Sutherland: 'La ruina de Venezuela no se debe al 'socialismo' ni a la 'revolución' en *Nueva Sociedad* No 274, 3-4/2018, disponible en <www.nuso.org>.

과 경제 제재를 비난하지만 정부 및 정부와 한통속인 수입업-은행업 부르주아 계급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독한 경제 위기의 실제 원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그들은 체제와 동맹을 맺은 국가의 다국적 기업들이 행하는 천연자원의 탈취와 파괴 행위들을 보고도 못 본 체하는 관념적인 반제국주의를 위해 수백 만 명의 고통과 경제 불황을 최소화한다. 오리노코의 아치형 광산³³⁾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현재 행해지는 생태계 파괴는 이런 상황을 드러내는 여러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조혜진 옮김

33) 오리노코 강의 남쪽에 있는 광산으로, 2016년 베네수엘라의 '국가 전략적 발전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베네수엘라 국토의 12.2%에 해당하는 면적에 약 7천 톤에 달하는 금, 구리, 다이아몬드, 콜탄, 철, 보크 사이트 등이 매장되어 있다. 우고 차베스 집권기에 이곳에 거주하는 원주민 공동체의 인간적·영토적 권리를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역주).